

# SAMSUNG 두뇌 vs LG 심장... 미래차 시장 '한판승부'

**삼성전자 '엑시노스오토'**  
자율주행 필수... 시장 경쟁자 없어

**LG전자 '모터·배터리'**  
美 GM 쉐보레 볼트EV 부품 공급



삼성전자 디지털 콕핏.



LG전자는 쉐보레 볼트EV에 모터와 배터리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11개 부품을 공급했다. /쉐보레

삼성과 LG가 자동차 전장 사업 주도권을 두고 경쟁 구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력을 앞세워 미래차 두뇌를 빠르게 장악하는 가운데, LG는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두뇌'는 삼성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17년 340억달러에서 2022년 553억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자동차가 빠르게 '전자화'되고 있는 데다, 2020년경 자율주행차도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차량 1대당 탑재되는 반도체가 2000개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들어 차량용 반도체 라인업을 완비하면서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다. 지난 4월 출시한 차량용 16Gb DR램이 시발점이다. 10나노급 공정을 적용한 LPDDR4X DR램으로, -40℃(도)에서 125도까지 견딜 수 있는 '오트그레이트1' 제품이다. 속도도 14%, 소비 전력 효율도 30% 높였다.

지난달에는 AP 라인업인 '엑시노스오

토'도 공개했다. AP는 연산처리장치로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엑시노스의 처리 능력을 이어받으면서도, 내구도와 안정성을 높였다. 아직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엑시노스 오토와 함께 소개된 아이소셀 오토는 차량용 이미지 센서다. 자율주행차가 주변을 인식하게 하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셀 간 간섭을 최소화해 작은 픽셀로도 고품질 이미지를 구현하는 '아이소셀' 기술을 탑재했다. 전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은 소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소셀 오토는 삼성전자가 소니의 점유율을 뺏아올 수 있는 미래 무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심장'은 LG

LG는 미래차 시장에서 심장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에 필수적인 모

터와 배터리 부문에서다.

모터는 LG전자가 자랑하는 전장사업 분야 중 하나다. 전 세계적인 몇 안되는 원천기술 보유사다. 인버터와 더블드라이브 등 신기술도 다수 보유 중이다. 세탁기와 청소기 등 가전을 통해 인정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배터리팩도 LG전자 주력 제품 중 하나다. LG화학이 만든 배터리를 완제품 형태로 납품한다. LG화학이 높은 배터리 생산 기술을 보유한 만큼, 자동차 업계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이를 활용해 미국 GM이 만든 첫 2세대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EV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올 초에는 미국 미시건주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 미국 현지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지난 4월에는 오스트리아 헤드

램프 기업인 ZKW를 인수하면서 전장사업 확대를 시사했다.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볼트EV에 이어 최근 공개된 제네시스 G90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게 되면서다. 메르세데스-벤츠와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등도 고객사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LG디스플레이가 큰 역할을 맡았다.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6분기 연속 자동차용 5인치 이상 LCD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달 열린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에서는 플라스틱 OLED를 활용한 미래형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경쟁 이제부터

단, LG전자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독점하는 상황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글로벌 전장기업인 하만을 인수하면

서 시장 경쟁력을 크게 제고한 바 있다.

'디지털 콕핏'은 삼성전자의 미래차 인포테인먼트 공략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모델이다. 올 초 미국에서 열린 'CES 2018'에서 공개된 것으로, 대시보드 전면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고 스마트싱스로 연결성을 대폭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배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빠르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삼성SDI는 8월까지 배터리 출하량이 1321MWh로 LG화학(2749MWh)에 크게 뒤쳐져있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와 협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양사는 선의의 경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 초 자율주행 솔루션 '드라이브 라인' 플랫폼을 공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현대차와 KT와 협력해 만든 첫 5G 자율주행차를 공개했다.

LG는 AI 연구와 더불어 자율주행 상용화에도 힘쓰고 있다. 로보티즈와 자율주행 모듈 개발을 계약하고, 이마트에 자율주행 카트를 공급했다. LG이노텍이 12일 국내 최초로 LTE 기반 차량용 통신모듈 C-V2X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힘을 합치기도 한다. 자율주행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다. 양사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출범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에 동참해 2021년까지 국제표준 20건을 제안하는 노력을 들일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은행권, 3450억 출연... 스타트업에 투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8450억 규모  
3년간 일자리 1만1000개 창출 예상

김홍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상임이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D.CAMP)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권 출연금 3450억원의 스타트업 투자로 향후 3년간 1만1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4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 34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결정해 재단 규모가 기존 5000억원에서 8450억원으로 확대됐다.

디캠프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사무국으로 스타트업 지원 실무를 맡고 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추가로 받은 출연금 중 3200억원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성장사다리펀드'에 3년간 출자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이를 기반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최대 1조6000

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나머지 250억원은 디캠프를 통해 3년간 직접 집행한다.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입주공간 지원, 채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활용한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성장사다리펀드로 1만80명, 직접 집행으로 961명 등 모두 이번 추가 출연금 투자로 1만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이나 디캠프 입주사와 투자를 받은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캠프는 2015년부터 3년간 194억원을 집행해 739명의 직접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 1인당 고용창출 비용은 2600만원이었다.

김홍일 상임이사는 "부수적인 연관 일자리까지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 규모는 1만1000명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동연 "고용지표 악화, 단기개선 쉽지않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

"중장기적 재정역할에 최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나빠지는 고용지표가 단기 내 좋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 고용동향 통계 발표를 보면 고용 빙하기로 가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구조적인 문제와 일부 정책적인 요소까지 가미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 복합적인데 단기 내 개선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엄중한 상황으로 계속 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과 달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줄어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예산을 통한 재정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 기 살리기인데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이 나오도록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2% 후반의 성장률이 나오더라도 우리 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고용과 성장의 구성요소 간 조화라든지 경제주체에서 어떻게 배분되는지 다른 문제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의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중부세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부세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부동산대책으로 중부세를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한국거래소-BNK금융, 中企 육성 지원

지역기업 육성·상장지원 등 MOU  
성장단계별 금융·투자유치 도와

한국거래소와 BNK금융그룹은 14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자본시장 상장 지원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으로 BNK금융은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발굴해 성장단계별 금융지원과 투자유치 활동을 돕는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증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 설명회를 개최

하고 개별 기업별 컨설팅과 자본시장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2015년 5개사, 2016년 4개사, 지난해 8개사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신규 상장 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지역의 혁신기업이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 ICT 수출액 3개월 연속 200억 달러 돌파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3달 연속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메모리 등 효과종목이었으며 디스플레이는 다소 주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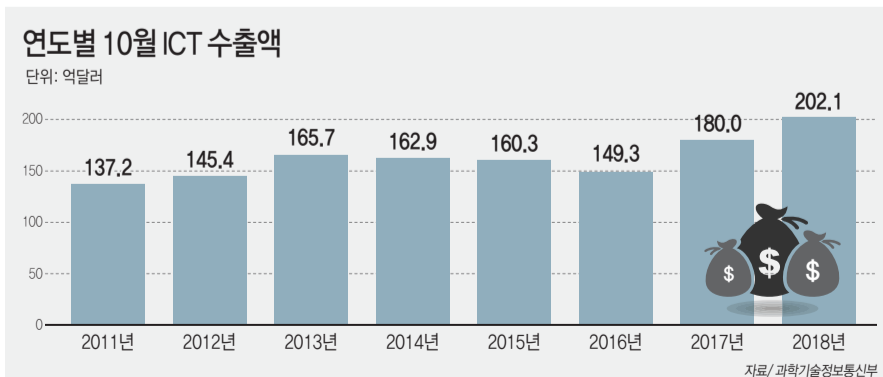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기준 ICT 수출액이 202억1000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치는 101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다. 10월 전년 동월대비 수출증가율은 12.3%로 다시 투자리수를 되찾았다.

8월에는 15.4%였다가 9월 들어 5.3%로 주저앉았었다.

효과종목은 단연 반도체였다. 117억

과기정통부, 전년비 12.3% 올라  
수출액 절반 이상 '반도체' 차지



1000만달러를 수출하면서 전체 수출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21.5% 늘었다. 6개월 연속 100달러 이상

을 기록했고, 연간 누적 1000억달러 돌파에도 성공했다. 이중 D램이 42억6000만 달러 수출됐다.

/김재용 기자